

“지방 주거안정 총력”…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지원 대폭 강화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신혼·고령층 아우르는 지방 주거지원 확대
올해 보금자리론·주택연금에 40조 공급…전세 대출·PF 관리 강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층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21일 주금공은 최근 금융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함께 금융 소외계층과 취약차주를 위한 포용적 금융 실천을 강화하겠다는 올해 추진 방향을 밝혔다.

주금공은 우선 올해 보금자리론 20조원, 주택연금 20조원 공급을 추진한다. 보금자리론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을 병행하고, 주택연금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층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금공의 올해 정책 중 특히 지방 맞춤형 정책이 기대되고 있다. 주금공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경감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배려층 대상 재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지자체 협약보증 개정으로 청년·신혼부부 이자 지원 확대 등 비수도권 이용자 지원을 확대한 것에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신혼 가구 금리 우대 강화와 다자녀 요건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

방 거주 청년·신혼부부 이자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의 지적에 따라 전남 등 인구 감소 지역과 지방 거주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도 개선된다. 주금공은 찾아가는 주택연금 상담 서비스와 함께 귀촌·이주 고령층을 고려한 실거주 요건 예외 확대 등 연금 기입 유인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신 전세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는 대폭 강화한다. 전세대출보증 비율 조정과 수도권·규제지역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사업자 보증은 선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금공은 올해 업무보고에 “전세대출보증 등 수요자 보증은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되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 보호, 에너지 전환, 탄소 저감 등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는 ‘녹색금융’도 확대된다.

주금공은 녹색 대전환 정책에 맞춰 녹색건축인증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년 준공된 광주효천1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338.6㎡·417㎡)도 각각 7억원, 15억원 내외로 공급한다.

토지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대금납부조건은 모두 2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이다. 공고는 LH정약플러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으로 확인 가능하며 입찰 신청, 입찰보증금 납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4시까지다. 개찰은 27일 오후 4시 30분, 낙찰자 발표는 같은날 오후 5시 30분 이후 LH정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에 관한 내용은 LH정약플러스 누리집이나 LH콜센터,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용 구조 개선 유도 등으로 주택 공급 지원을 확대해 무주택자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배려층

대상 특별 재무조정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그린보금자리론 운영 체계 고도화 등 녹색금융도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LH, 광주전남혁신도시·여천돌산지구 등 7필지 공급

단독주택·주차장·준주거·근린생활시설용지…26일까지 입찰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전남혁신도시, 여천돌산 단독주택용지 등 지역 내 준공지구 보유토지 총 7필지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광주전남혁신도시 남서쪽 산학연클러스터 구역에 있는 주차장 용지 1필지를 공급한다. 면적은 2434.9㎡로 공급 예정 가격은 17억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나주시가 유치에 성공한 6805㎡ 규모의 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부지가 인근에 있어 향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천돌산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2필지는 당초 유치원 용지였으나 용도 변경해 이번에 신규로 공급되는 토지다. 면적은 필지당 800㎡로 공급

성화와 수요 기반 확대가 기대되는 곳이다. 2023년 준공된 광주효천1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338.6㎡·417㎡)도 각각 7억원, 15억원 내외로 공급한다.

토지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대금납부조건은 모두 2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이다. 공고는 LH정약플러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으로 확인 가능하며 입찰 신청, 입찰보증금 납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4시까지다. 개찰은 27일 오후 4시 30분, 낙찰자 발표는 같은날 오후 5시 30분 이후 LH정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에 관한 내용은 LH정약플러스 누리집이나 LH콜센터,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마이 자이’서 분양부터 계약·입주까지 한번에 처리

GS건설 통합 플랫폼 개시

GS건설은 “계약 고객 통합 서비스 플랫폼 ‘마이 자이’(My Xi)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마이자이는 자이 아파트 계약 고객을 위한 온라인 웹 전용 서비스로, 분양부터 계약·입주까지 한

화면에서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GS건설은 “계약 변경과 정정, 중도금·잔금 납부, 환불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 접수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전화나 현장 창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이 스스로 계약의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류를 미리 제출한 뒤 입주 당일에는 최소

한의 확인 절차만 거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입주 당일 현장 혼잡도가 많이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자이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범어 자이’ 입주 현장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향후 GS건설이 주관사로 시공하는 단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양·화순 부동산 직거래 게시판 운영 중단

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보증금 편취 등 피해 대응

협회 관계자는 “직거래 게시판은 거래 당사자 보호 장치가 부족해 사기 피해와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최근 전세사기와 보증금 편취 사건이 늘면서 공공기관이 직거래 창구를 제공하는 것 이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광양시와 화순군은 협회의 견의와 피해 우려를 검토한 끝에 게시판 운영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로 대응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운영 중단을 전국으로 확산 시켜 무자격 중개와 직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견전한 중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얼어붙은 주택 경기에 부동산 개업 줄었다

공인중개사 IMF 이후 최저

지난해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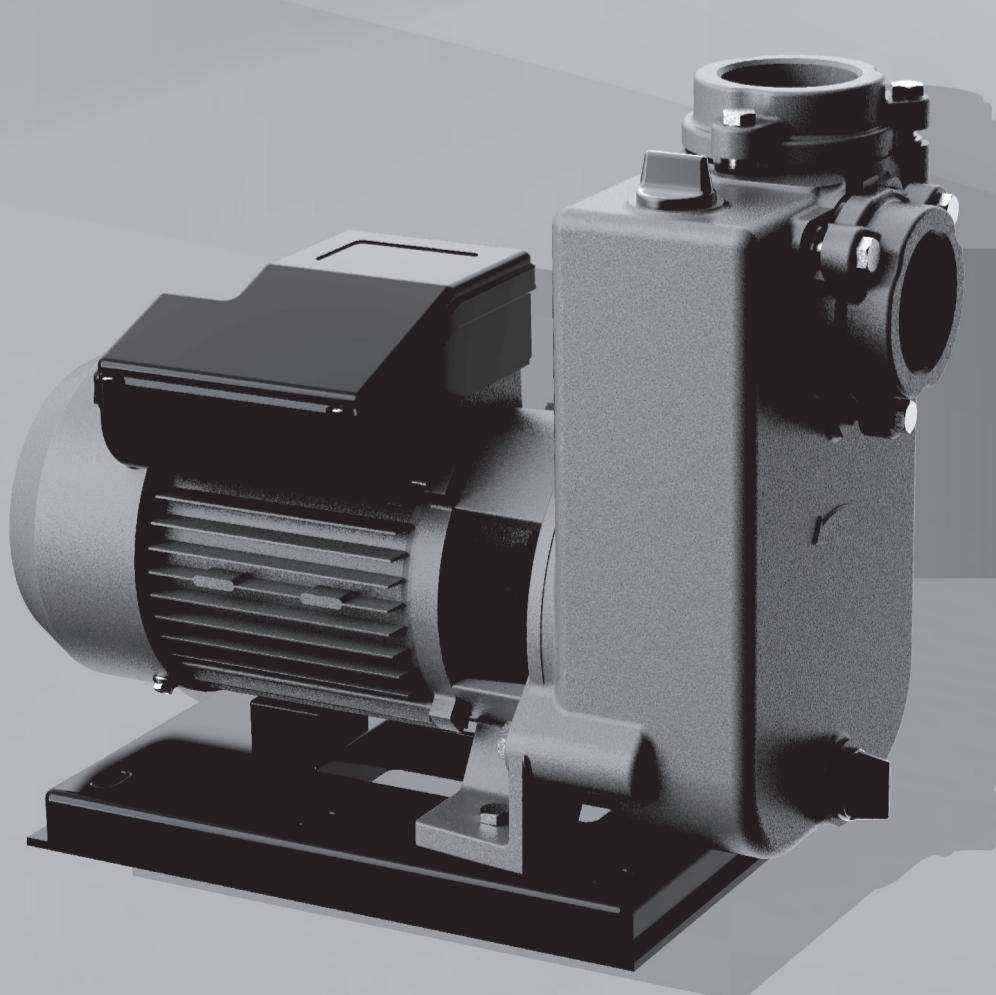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작년 전국적으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9150명으로, 1998년(7567명)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지난해 폐업 공인중개사는 1만1297명, 휴업 공인중개사는 1198명이었다.

전국적으로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11개월째 이어졌다.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수자는 11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0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월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월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